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6월 10일(목) 총 3매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당자	• 유통식품관리팀장 한명숙 ☎440-2781 • 담당자 이해은 ☎440-2783	
사 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70개 ‘식품위생 우수업소’ 선정

- 식품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-  
- 위생용품 지원, 인천관광 홈페이지 홍보, 여행사 관광코스 포함 등 지원 -

인천시가 매년 3개 내외 전통시장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우수업소를 선정해 육성·지원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부터 위생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중 우수업소를 육성·지원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·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‘2021년도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 육성·지원사업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시는 관내 전통시장 31개소 중 식품판매 업소 수 최다 지역을 우선순위로 올해는 3개 전통시장 신기시장(미추홀구), 모래내시장(남동구), 부평종합시장(부평구)의 식품판매업소 205개소 중 70개소를 식품위생 우수업소로 선정했다. 시장별으로는 신기시장 22개소, 모래내시장 20개소, 부평종합시장 28개소이다.

주요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▲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의 식품의

위생적 취급여부, 시설기준, 종사자 친절서비스 등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업소를 선정해 위생용품 지원 ▲인천관광홈페이지(인천투어)를 통한 우수업소 홍보 ▲여행사 등에 관광코스로 삽입해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등이다.

시는 식품위생우수 선정업소에 방수위생복 세트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영업자 자율점검표를 영업장에 비치해 지속적인 식품위생우수업소 유지·관리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영업주에게 당부했다.

영업주의 자긍심과 실질적인 지역경제와 연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천관광 홈페이지 ‘인천투어’에 전통시장 식품위생우수업소 상세 프로필(업소개요, 대표메뉴, 시설 및 이용안내 등)을 등록·홍보해 내·외국인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. 여행사의 관광코스에 우수업소 방문 이용 등으로 관광자원화 구축을 통한 국내·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.

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전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, 취약한 식품위생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”면서 “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를 적극 발굴·육성해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붙임>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 관련사진

